

■ 해설이 있는 음악회-오페라 '카르멘'

# 해설·아리아 어울려 현장 이상의 감동

지난 31일 오후 2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앞. 평소 같으면 인적이 거의 없는 낮 시간임에도 삼삼오오 관객들이 모여 들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리는 광주문예회관(관장 정창제)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보기 위해서다. 공연이 시작 되려면 한 시간이나 남았지만 소극장 주변은 막바지 무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400여 명의 열혈음악팬들로 뜨거웠다.

특히 광주 각화중학교에서 단체관람 온 학생들과 나주, 목포, 담양 등에서 원정관람 온 관객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광주문예회관이 개관 20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의 두번째 공연은 오페라 '카르멘'이었다. 세계 3대 오페라 가운데 하나인 비제의 '카르멘'은 스페인의 세비야를 배경으로 집시 카르멘과 하사관 돈 호세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오페라 평론가 이용숙(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씨의 해설이 곁들여진 이날 공연에서는 런던 코벤트가든 로얄오페라하우스의 '카르멘' 실황을 담은 DVD 상영과 김선희 교수(조선대 외래교수), 메조소프라노 신은정(호남신학대 외래교수), 바리톤 김기보(광주대 음악학부 외래교수)씨 등이 출연해 카르멘의 주옥같은 아리아를 선사했다.

이날 해설가로 나선 이씨는 차분한 어조와 해박한 설명으로 관객들을 사로잡

## 평론가 이용숙씨 오페라 유래·감상법 등 설명

## 실황 DVD·성악가 3인의 무대 관객 사로잡아

았다. 특히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들을 위해 오페라 유래와 감상법 등 '오페라의 A~Z까지' 알기쉽게 설명해 큰 호응을 받았다.

"흔히 오페라 하면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를 떠올리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많은 오페라는 '카르멘'입니다. 오페라의 70%가 이탈리아 작곡가들의 작품인데 반해 '카르멘'은 프랑스 작곡가 비제가 작곡했어요. '카르멘'이 이탈리아 산(産) 오페라들을 따돌린 이유는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관성적이고 매혹적인 여주인공 집시와 화려한 음악은 다른 작품에서 볼 수 없는 매력을 주거든요."

이날 음악회는 대형 오페라극장에서의 '리얼공연'은 아니었지만 그 이상의 감동을 주었다. 런던 코벤트가든 로얄 오페라하우스의 공연 DVD를 스크린으로 상영해 마치 오페라 극장에서 '카르멘'을 즐기는 듯한 현장감을 안겼다.

특히 이날 음악회의 하이라이트는 3명의 성악가 무대였다. 해설 중간 중간에 등

장한 김선희 교수와 신은정, 김기보씨는 '이젠 나 두렵지 않네', '하바네라', '투우사의 노래' 등 '카르멘'의 주옥같은 아리아들을 선사했다.

클래식 음악 감상실 '베토벤'과 '다락'에서 오페라 동호회를 이끌고 있는 안철씨는 "오페라에 대한 친근하고 해박한 설명이 돋보인 음악회였다"면서 "이번 무대처럼 시민들의 문화소양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목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온 정수희(36)씨는 "평소 오페라에 관심이 많았지만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늘 아쉬웠다"면서 "이번 음악회를 통해 오페라에 대한 거리감을 좁힐 수 있었다"고 즐거워했다.

이용숙씨는 "오페라 작품 가운데에는 초보자들이라도 한번쯤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아리아가 많다"면서 "오페라 서적이거나 DVD, CD를 통해 자주 접하다 보면 귀가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 “책 읽고 전시회 보며 마음 살찌워요”

## 광주 공공도서관 9월 독서의 달 행사 다채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광주 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마음의 양식도 쌓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책과 함께 신나게 놀아요=광주시립무등도서관은 5일부터 '감동추천도서 목록'을 배부하며 담양 거주 이주여성들을 초청 도서관 체험행사(23일)를 준비했다.

21일에는 유아들을 위한 그림책 읽기 방법을 가르쳐 주는 북스타트부모교육을 갖고 24일에는 북구 우산근린공원에서 '좋은 책 돌려보기 장터'가 열린다.

사직도서관은 무료로 가훈을 써주는 '한글 가훈 써주기'(15일) 행사와 캐릭터인형을 활용한 매직 북화술 공연(16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경제습관 형성을 길

러주기 위한 체험행사 '어린이를 위한 경제 이야기'(21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산수도서관에서는 그림책 빛그림 영상을 상영하는 그림책 극장(7일), 동굴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어린이교양강좌 '동그라미 지구마을 배우기'(16일), 북스타트 부모교육(21일)을 진행한다.

일곡도서관은 추억의 영화를 감상하는 '추억터치 영화감상'(4~26일)을, 신안동작은도서관에서는 매주 월·화요일 '친구들이 이야기 교실로 모여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명 강사, 작가와의 만남=사직도서관은 9월 3층 다목적실에서 이경학씨를 강사로 창의적 자녀교육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특강을 실시한다.

산수도서관에서는 21일 '마주이야기'의 저자 박문희씨를 초청, '아이는 들어주는 만큼 자란다'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28일에는 교육 칼럼니스트 황미용씨가 '우리아이 독서지도 어떻게 할까?'라는 내용으로 강연회를 연다.

일곡도서관은 30일 김선숙 강사를 초청 청소년 비전과 리더십 강연회를 갖는다.

▲전시회도 열어요=무등도서관은 23일까지 '그림책 원화 전시회'를 연다.

사직도서관은 20일까지 1층 작은갤러리에서 기후 사진전을 열고, 어린이 북아트전을 23일까지 갖는다.

일곡도서관에서는 '우리이야기 달라졌어요 아동도서'(8~21일까지), '인간작가 도서 모음전'(20~29일까지), 남도작가 초대전(7~20일까지)을 준비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첼로가 들려주는 '가을 소나타'

### 황일희 독주회 6일 금호아트홀

황일희 첼로독주회가 오는 6일 오후 7시30분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서울예고를 졸업 후 도미,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마치고

신시내티 음악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황씨는 프라하첼름비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했으며 현재 예원학교, 상명대 등에 출강중이다.

이번 연주회 레퍼토리는 바흐의 '첼로



와 하프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바버의 '첼로 소나타 C단조',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첼로 소나타 F장조' 등이다.

피아노 반주는 함인아씨가 맡았다. 전석 무료.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가곡·오페라·팝·포크송의 변신

### 퓨전 콘서트 '꽃들에게...'

### 6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수 기현수와 친구들의 퓨전 콘서트 '꽃들에게 희망을'이 오는 6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광주문예회관이 특별기획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 화요예술무대에 초청된 기현수씨 등은 이날 공연에서 클래식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팝, 포크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퓨전스타일로 편곡해 들려준다.

연주 레퍼토리는 슈베르트의 '송어', 엘가의 '사랑의 인사', 베토벤의 '그대를 사랑해' 등이다.

기현수·국소남씨와 함께 바리톤 염종호씨, 플루티스트 변성호·배혜경, 첼리스트 천



지연씨 등 통기타 가수들과 클래식 연주자들이 출연한다.

행사를 주관한 (사)들꽃마을사람들은 음악을 통해 사회에 대한 봉사를 펼치고 있는 단체로 창작, 공연, 예술 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문화를 조성하고자 결성됐다. 티켓가격 2만원, 1만원. 문의 062-512-117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우리동네 문화 소풍'

### 내일 수완지구 농협하나로클럽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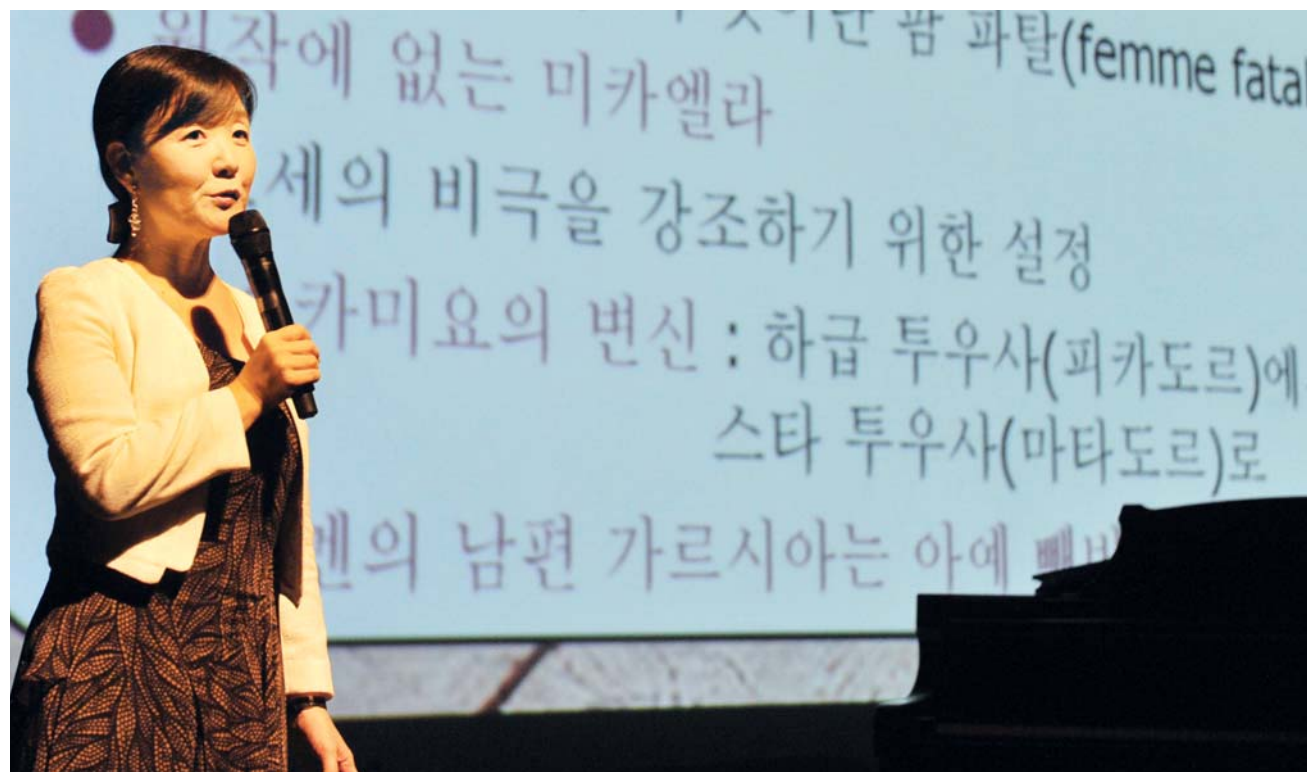
공연과 전시로 주민 화합을 다지는 '우리동네 문화 소풍'이 3일 오후 4시 광산구 수완지구 농협하나로클럽 건너편 공터에서 열린다.

광주시민센터 광산지부(지부장 임미숙)에서 주관하는 이날 행사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준비한 합창, 큰별초등학교 오카리나 합주단 공연이 열린다.

수완중 학부모 동아리 소리숲의 통기타 공연과 운남노인복지회관 어르신들의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또 공연과 함께 도깨비 어린이도서관의 좋은 책·원화 전시회를 비롯해 팝업북 만들기, 구름빵 포토존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했다.

풍영정천사랑모임에서는 풍영정천의 다양한 생물들을 세밀화를 통해 만나볼 수 있는 생태세밀화 전시회를 연다.

문의 062-962-1279.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난 31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해설이 있는 음악회-오페라, 그 행복한 중독'에서 오페라 평론가 이용숙씨가 '카르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주간 즐거운한자는 광주일보를 구독하시는 분이 신청을 하시면 무료로 드립니다!

▶ 신청 하십시오!

무료로 한자학습·역사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간 즐거운한자 구독신청문의 : 해당지국 또는 ☎062)220-0551

## 한민족 최고의 영웅 판타지! 고구려 대무신왕!



광주일보 **즐거움** 漢字 에 고구려 대무신왕이 연재됩니다.

광개토대왕, 장수왕도 "대무신왕"이 없었다면, 지금의 위대한 고구려를 이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민족의 전설 삼족오 고구려 <대무신왕>은 천손의 뜻을 이어받은 고구려 제3대 제왕입니다.

지금부터 한민족 최대의 영웅, 대무신왕을 통해 광활한 대륙으로 뻗어간 고구려의 위대한 기상을 느껴보세요!